

모순과 불균형의 일시적 해결사

공황설에 근거한 한국경제 진단을 위한 기획시리즈 <1> - 경제공황의 이론적 고찰

I. 머리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생산의 경제적 운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생산의 기본법칙은 산업순환이라는 물질적 기초를 통해 관철된다. 산업순환에서 개별기업들은 침체-증식의 호황이 나친 호황-공황의 순차적 시기를 통과한다. 물론 자본이 투하되는 기간들은 매우 상이하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은 언제나 대규모의 새로운 투자의 출발점을 이룬다. 따라서 사회적 전체를 관찰한다면 공황은 대체로 다음에 올 자본의 회전순환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물질적 기초를 이룬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황은 산업순환의 출발점인 것이다.

그러나 공황의 이론적 분석은 사회적 생산의 경제법칙 그 자체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자본주의 생산형태 아래에서는 사회적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수행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뿐인데, 그 경우에도 국가는 사회적 총자본의 경제적 이해만을 대변한다. 따라서 사회적 생산의 기본법칙은 자본주의 생산형태 아래에서는 공황에 의해서만 관철되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공황에 관한 분석은 사회적 생산의 기본법칙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문제가 대상인 것은 아니며, 다만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경제공황의 불가피성과 그 발생과정을 문제로 삼을 것이다.

II. 경제공황의 두가지 파악 방식

경제공황은 실무적인 사업가들에게는 주식투기의 붕괴, 투자 및 생산의 급격한 감소, 실업인구의 곤란스런 증대, 기업과 은행의 도산 등과 같이 심각한 현실을 갖는 불가피한 사태로 나타난다. 물론 그것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 것인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 규모나 범위도 미리 확정되지 않는다. 이렇듯 공황은 경제적 조건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이 현실상태와 경제적 내용을 다르게 바꾸면서 발생하는 경제현상으로서 사회적인 객관적 존재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인 사업가들과 달리 경제이론가들에게서는 사정이 이와 다르다. 우선 공황은 특별한 정의로 확정될 수 있는 특정한 생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파악되기 곤란하며, 여기에서 온갖 혼란이 발생한다. 즉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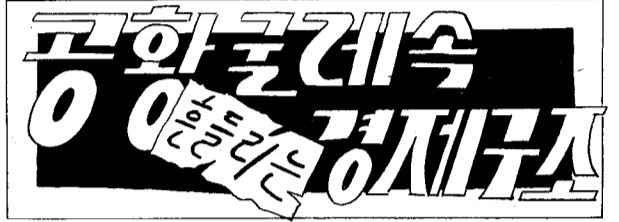
황은 자본주의적 생산형태의 자기 부정일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발생양상도 고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황이 하나의 이론적 대상으로서 어떻게 합리적인 표현을 얻는가 라는 점이 우선적인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서로 다른 파악방식이 적용된다. 먼저 경제공황은 인간의 머리위로 집어 무너져 있을 때의 중앙감을 갖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찰되는 가치법칙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형 가격폭락으로 인한 상품 가치의 폭력적인 파괴나 특정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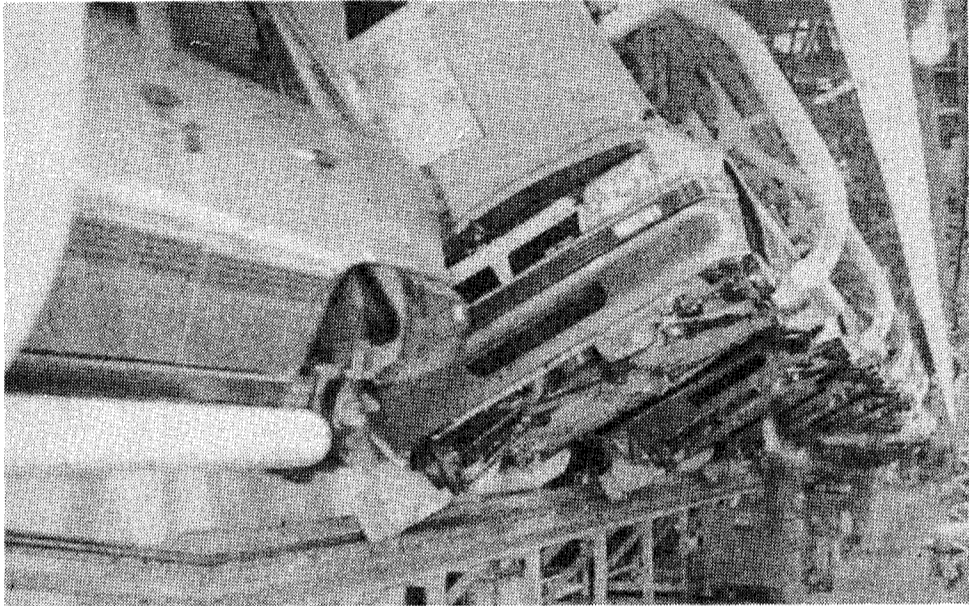
을 파괴하고 생산규모를 축소시킨다는 서로 대립적이며 이중적인 규정을 내포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제공황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자기한계를 갖는 자본주의적 경제학과 항상 비생산적인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무적인 사업가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경제공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그것의 존재를 실천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필요한 이론을 전개하지 않는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소비자분의 경우에는 공황기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라는 문제이며, 대자본가의

산되기 때문에 공황이 발생하는 것이며, 역으로 공황은 생산과정에 반작용하여 그것이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즉 공황의 발생과정은 현실적인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 이들 두 경우 모두가 공황의 발생조건이기 때문에 공황은 산업순환의 한 국면이면서도 자본과 관련하여서는 생산과 유통 모두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외연적 범위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공황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 해결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화하는 공황의 형태와 경제적 내용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도 자본의 과잉축적의 결과이다. 과잉자본의 생산은 자본의 생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본의 유통과 관련된 공황의 현실적 발생과정은 주로 공황의 범위확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들 두 문제 가운데 과잉자본의 생산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말하자면, 과잉자본은 자본의 일정한 가치증식조건 아래에서 자본으로 가능하게 되는 과잉생산된 생산수단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과



한국경제를 위시하여 현재 전 세계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순환의 과정에서 가장 중점시 되는 것은 공황의 진입여부이다. 이에 본 시리즈는 최근 침체에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공황설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 바 그 논의들을 지원시켜 한국경제의 현수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과잉생산된 과잉자본의 과잉축적은 과잉자본의 과잉축적에 의해 발생한다. 과잉자본의 과잉축적은 과잉자본의 과잉축적에 의해 발생한다. 과잉자본의 과잉축적은 과잉자본의 과잉축적에 의해 발생한다.

자본의 과잉생산과 유통상의 마찰이 공황발생 시켜 현 자본체제내 새로운 사회적 생산형태는 시대적 요청

경우에는 어떻게 공황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 라는 문제일 뿐이다. 바로 이 점이 바로 공황이 관념적인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공황을 앞세워 같이 표현하는 것이 어째서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표현으로 되는가 하는 점도 바로 이와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생산관계는 평균이윤을 낳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그 생산력의 발전이 허용된다. 만약 생산력발전의 결과 이윤율이 저하하게 된다면 그 생산력은 파괴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그 모순의 해결방식인데, 이때 상품 및 자본 가치의 파괴를 가져오는 공황이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공황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을 위한 일련적 기초적 가치법칙을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그 생산양식의 부단한 발전을 가져오는 내적 동력인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을 일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생산력

의외적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루어진다.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경제공황이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공황의 전제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개념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경우 사이에는 하나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공황의 발생과정은 과잉자본과 상대적 과잉인구의 범주를 전제로 한다. 이 전제는 자본축적 과정에서만 충족되는 것이다. 이는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축적의 진행과정에서 과잉자본 부분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그에 따라 과잉인구의 누적적 생산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으로 규명되기 때문이다. 이 의미에서 자본축적과정은 과잉자본의 생산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다. 잉여가치의 생산과 공황의 발생과정은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필요하다. 먼저 잉여가치를 낳는 가치로서의 자본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본의 생산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임자본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다음과 같은 세 경우가 상정될 수 있다. 첫째, 일반이윤율이 종래의 평균적인 수준 이하로 저하하게 되면,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추가적인 구매가 종래의 평균적인 수준 이하로 감소하게 되어 서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놓여있는 개별자본들 사이에서 공급측의 자원이 불균형하게 생산과잉과 자본과잉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이윤율의 저하가 이윤율을 자본의 최소규모 이하의 크기로 감소시킬 경우 자본과잉이 발생한다. 자본축적과정에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진행되면, 산업자본으로 가능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자본규모는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윤율이 이 최소한도에 미달하면 자본축적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태는 앞에서 지적한

자본과잉이 아니라 일부의 개별자본들은 자신의 자본가치를 증식시키게 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자본가치를 축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개별자본들 사이에는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관련된 독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자본들 사이의 기존의 교환관계가 고립된다면 재생산과정의 돌연한 중단, 곧 공황이 발생하게 된다. 공황발생의 이 국면은 기존자본의 가치감소가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에 의해 발생하는 것

이며, 또한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말해 준다. 즉 이 국면의 공황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한계가 자본 그 자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공황에 있어서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유통상의 파괴적 영향 때문에 기존자본이 파괴되는 측면만이 주목되었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원 동진문화 / 혁신극장 (2/26-3/9) 원 뽀뽀 원 세이메움극장 (~3/15) 원 고승영연극회, 도예전, 권이수연 (3-5)	2 원 퍼포먼스아울라 / 예림극장 (~3/9) 원 임지훈작은방문극단 / 동호 2 라이브홀 (~3/8) 원 진주 신진극단 / 청어이음관 (~3/17)	3 원 신인생현행방문 / 원산대 (3/2-3/6) 원 원산대 (3/4-3/8) 원 광주창작극단 / 광주신씨문당 (3/3-3/9)	4 원 웅천오리연예인사 / 고대 예술원 공연 / 숙민대 (3/4-3/6) 원 풍물, 발동, 판소리, 민요극단 / 권진소극회 원 김동환 라이브홀 / 미담씨문당 (3/1-3/15)	5 원 강강술래 /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3/5-3/8) 원 한국현대극단 / 중앙극장 (3/5-3/8) 원 조선극단의 그림자 / 학교로 (2/27-3/8)	6 원 함은도독이아기 연극의극장 (3/5-3/7) 원 92년 동북한 초대전 (3/5-3/12) 원 살바도르 달리 조각전 / 갤러리나인 / (~3/6)	7 원 서양서예문화 / 원진대 예술극장 (~3/16) 원 최화진 피아노독주회 / 예술의전당 원 우두메이시탈 / 성창극장 (3/3-3/31)
8 원 원진대 주최 보드사진전 / 인화대 (3/9-3/13) 원 발동, 판소리 / 흥사단 남부문당 (3/9-5/25)	9 원 진주 문화회관 / 원진대 예술극장 (3/10-4/23)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15)	10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11-3/15) 원 살바도르 달리 조각전 / 동승이음관 (3/3-3/15)	11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11-3/15) 원 살바도르 달리 조각전 / 동승이음관 (3/3-3/15)	12 원 신인생현행방문 / 서울대 국립중앙극장 (~3/22) 원 원진대 예술극장 / 국제행 (3-14)	13 원 신세계전시회 한민도 / 포항극대 교양극장 원 이음조각사 / 계동아트홀 (3/13-3/15) 원 예술의전당 / 국립중앙극장	14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13-3/31)
15 원 불꽃축제 / 대동극장 (~3/31)	16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2/26-3/23)	17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18-3/31)	18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18-3/31)	19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19-3/25)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19-3/25)	20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20-3/22)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20-3/30)	21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20-3/30)
22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4-4/9)	23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23-3/28)	24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19-3/21)	25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19-3/21)	26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25-4/25)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25-4/25)	27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20-3/30)	28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28-3/29)
29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24-3/25)	30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24-3/25)	31 원 원진대 예술극장 / 원진대 예술극장 (3/24-3/25)				

3월의 문화달력

나 스스로의 점프!

점프란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부처 자란 자신을 확인하는 것.

또한 그것은, 편견을 넘고 이기적 발상을 넘고 소아적 우월주의를 넘어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자유로이 달려가는 것.

입학과 새로운 다짐의 3월 캠퍼스의 3월은 점프를 준비하는 약동의 시간입니다.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행사를 알리기 위해 현대그룹이 제공해 드리는 문화달력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가 있으면 행사 전일 25일까지 현대그룹 문화실(서울종로구 계동 140-2, 전화 746-3347)로 알려주시면 성심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